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 일시 : 2024. 3. 19.(화) 20:24~23:09
- 장소 :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제 1 차 부 산 대 학 교 중 앙 운 영 위 원 회
임 시 회 의 회 의 록**

2024. 3. 19.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사 무 총 괄 국**

목 차

I. 회의 개요

1.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개요

II. 보고 안건

1.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성원 보고

III. 논의 안건

1. (2024. 3. 19.) 총학생회 공식 민원창구(이메일)로 접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논의 안건 추가(징계안 발의)에 관한 건
3.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4.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한 건
5. (2024. 2. 21.) 국회의원 후보자와 만난 것에 대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 징계 심의에 관한 건
6. (2024. 3. 18.) 총학생회장 이창준 방문에 따른 징계 심의에 관한 건

I. 회의 개요

1.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개요

가. 일 시 : 2024. 3. 19.(화), 20:24~23:09 [약 1시간]

나. 장 소 : 부산캠퍼스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상 정 안 건 : 총 5건

□ 보고안 3건, 논의안 2건

라. 재 적 위 원 : 19명

□ 재적위원 구성 - 의장(총학생회장), 부의장(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단과대학 회장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

마. 개 의 요 건 : 10단위 이상 참석

바. 의 결 요 건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 참 석 위 원 : '[붙임 1]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자 명단' 참조

아. 기록물 작성자 :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 전영욱

자. 기록물 책임자 :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 전영욱

II. 보고 안건

1.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성원 보고

의장 권한대행 : 총학생회장 이창준의 징계와 관련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석영임. 먼저 성원 보고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음. 간호대학 학생회장님, 경영대학 학생회장님,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님, 공과대학 학생회장님, 사범대학 학생회장님,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님, 사범대학 학생회장님,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님,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님, 약학대학 학생회장님, 예술대학 학생회장님, 인문대학 학생회장님,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님,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님, 의과대학 학생회장님,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장님,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장님, 과반 이상이 출석을 해주셨으므로 개회 요건을 충족함. 따라서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겠음.

III. 논의 안건

1. (2024. 3. 19.) 총학생회 공식 민원창구(이메일)로 접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의장 권한대행 : 먼저 첫 번째 안건은 회원의 징계안 상정에 대한 승낙 여부에 관한 건임. 방금 사무총괄국장께서 배부하신 자료를 확인하시고 회원의 징계안 상정 승낙 여부에 관한 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먼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약 2분 정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경통(정) : 첨부 자료에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중 '총학생회장단과 임원분들'이 아닌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분들'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징계안을 상정하신 회원께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으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람. 2분이 지났으므로 회원의 징계안 상정에 대한 승낙 여부에 관한 건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먼저 회장님들 중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 있으신지? 관련해서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인문(정) : 이 징계안의 사유에 대해서는 대상자인 총학생회장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첨부 자료를 보면 '지지함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방문한 것 ~ 보입니다'라는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고 어떤 징계를 내릴지 혹은 징계를 내릴 것인가에 관해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이 확실하나 소명을 할 때는 1번의 결 사항이 아닌 징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승낙을 한 이후에 2번과 3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리고 징계안을 승낙한 이후에 소명인을 모셔 와서 소명을 듣고 그 이후에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한 건을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경통(정) : 징계 내용을 보면 '마땅한 처우를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회원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징계 수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하거나 결정한 대로, 학생분들의 의견을 받든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일단 결정을 하고 학생분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기타 질의 사항이 있는지?

동연(정) : 총학생회칙 제88조에 '모든 회원은 제재 발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징계안 상정을 요청한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부산대학교 학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지? 그리고 동아리연합회가 특성상 단과대학이 아니라서 학생증 등의 이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했는데 이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음. 졸업자까지 나오는데도 해당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고 이분이 '저는 부산대학교의 한 학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100% 신뢰가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징계안에 대한 신뢰성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함. 총학생회에도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간사 : 아시다시피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지금 징계안을 상정해 주신 분에 대해 우리 학교 학부생인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고, 그 과정을 내일 학생과에 요청드려서 확인할 것인데 해당 징계안을 상정해서 논의를 했을 때 만약 이분이 총학생회칙에서 지정하는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오늘 논의되거나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람.

사범(정)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징계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징계안을 상정한 사람에 대하여 확인이 된 후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즉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지, 가정하고 논의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함. 지금 해당 학우에 대한 정보는 첨부 자료에 있는 것이 끝인지?

간사 : 지금 첨부 자료에 보이는 것처럼 이름과 이메일 주소 두 개가 끝나고, 이것을 토대로 내일

학생과에 이분이 실제로 학적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예정임.

사범(정) : 그러니까 지금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하지, 가정하고 이 논의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해당 학우가 정말 부산대학교 학우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본인이 한 가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참석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서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는 다른 학우의 징계안 상정 요청이 없더라도 징계안 상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분의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징계안을 논의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됨. 이분의 신분이 보장되고 난 이후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논의했다면 그것은 백지화된다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직접 징계안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경통(정) : 만약에 저희가 징계안 상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희가 여기서 그냥 '징계위원회를 엽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지?

간사 : 답변드리겠음. 총학생회칙이 우리나라로 가정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명료성이 부족한 면이 있음. 그래서 회칙을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절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니까 문서로 발의해라 또는 누구에 대해서 명확히 해라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일단 상정을 하신다면 진행은 될 것 같음.

인문(정) : 그럼 징계안이 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간사 : 별도 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님.

경영(정) : 본인도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우분들이 빠른 대처와 반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므로 비록 이메일 보낸 분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중운위도 부산대학교 학생 중 한 명이므로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봄.

의장 권한대행 : 기타 질의 사항이 있는지?

인문(정) : 본인은 지금 징계안의 사유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의 주체가 혼란스러운데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분들'이라는 명칭을 차용한 것은 장예찬 후보고, 총학생회장과 임원이 어떤 유세에 참가했다는 건지 너무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듦. 그래서 징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명백히 확인이 되었을 때 상정해야 하는 것인데 단지 후보자가 올린 사진만을 근거로 해당 정당을 '우리가 지지했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과한 추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다음으로 '논란에 휩싸임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징계안을 상정 요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 징계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생각임.

사범(정) : 근데 지금 회칙 구조상 중운위에서 팩트 체크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려면 징계안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징계안을 상정하여 진행한 후 소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그리고 오해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서 징계 수위 등의 내용은 추후에 논의를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본인은 소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경영(정) :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안 상정 승낙이라고 하면 이메일을 기준으로 징계안 상정 요청을 승낙하는가에 관한 건일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권한대행께 해당 징계안 상정 요청을 승낙하는 것에서 중운위의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간사 : 방금 하신 말씀이 오늘 소명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인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같아서 항상 절차는 징계안 상정에 대한 찬반부터 시작하여 내용을 논의하고 이것에 대하여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찬반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에 징계 수위에 대한 찬반, 이렇게 총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고 권한대행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하고 상정한 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절차상 옳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소명인의 소명을 듣기 위하여 징계안을 상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징계안 상정 요청의 경우에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한 후 중앙운영위원회 권한대행의 징계안 상정에 관한 의결을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함.

인문(정) : 말씀 주신 내용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의장 권한대행 : 첫 번째는 해당 징계안 상정 요청한 것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징계안을 중운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임. 한 마디로 징계를 요청하는 주체가 해당 사람인지, 아니면 중운위인가 하는 차이가 있음. 기타 질의 사항이 없다면 첫 번째 안건은 이미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으로 중운위의 징계 요청 승낙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금 찬반이 아니고 의결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사 표명을 묻도록 하겠음.

인문(정) : 해당 징계안을 상정하냐, 마냐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음.

공과(정) : 해당 안건을 먼저 결정하고 저희 이름으로 올릴지 말지를 다음에 의결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제1차 중운위 1번 안건 2024년 3월 19일에 총학생회 공식 민원창구로 접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2024년 3월 19일에 총학생회 공식 민원창구로 접수된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1. 2024년 3월 19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창구로 접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0명의 찬성으로 원안 부결 ”

※ 반대: 경통(정), 공과(정), 나노(정), 동연(정), 사범(정), 사회(정), 예술(정), 인문(정), 자연(정)

※ 기권: 경영(정), 생과(정)

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논의 안건 추가(징계안 발의)에 관한 건

의장 권한대행 : 이전 안건은 부결되었고, 이어서 다음 안건은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에 관한 건임. 제1차 중운위 임시회의 논의 안건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안 상정하는 것을 논의 안건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간사 :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해당 의결에 대해 찬성하신 분들은 개인 자격으로 발의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람.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단체로는 징계안을 발의할 수 없고 '모든 회원은 ~ 발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람.

“ 의결 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논의 안건 추가(징계안 발의)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 반대: 인문(정)

※ 기권: 동연(정)

3.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다음 안건은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의된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임. 제1차 중운위 임시회의에서 발의된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인문(정) : 혹시 해당 의결이 방금 했던 의결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인지?

간사 : 이 건은 방금 여러분들 중 일부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상정하여 논의할 것인지에 관한 것임.

“ 의결 3.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발의된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 반대: 인문(정)

※ 기권: 동연(정)

4.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한 건

의장 권한대행 : 네 번째 안건은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한 건임.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 문제 제기가 된 것은 2월 21일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예찬 후보자의 선거 캠프를 방문하였다는 것임.

동연(정) : 심의의 대상이 총학생회장만인지, 아니면 부총학생회장과 전략조정실장이 포함된 건지?

의장 권한대행 : 지금은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것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단 한 명에 제한될 것 같음.

인문(정) : 그럼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이렇게 두 번씩 진행하는 것인지?

의장 권한대행 :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간사 :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하여 진행하면 됨. 그러니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논의하셔서 의결을 통해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것임.

동연(정) : 발의를 할 때 제대로 말을 해줘야 징계 대상이 누군지 알 것 같음.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두루뭉술하게 진행하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함.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생각이 모두 다를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있으면 간사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한 마디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간사 : 본인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기에 발언하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본인이 파악한 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음. 2월 21일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후보자의 선거 캠프를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께서 참가하셨음. 그 후 공식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장예찬 후보자가 방문 사실을 업로드 하였음. 두 번째로 3월 18일 국민의힘 소속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장예찬 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총학생회장님께서 방문하셨음. 또한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 공식 SNS를 통해서 업로드 되었음. 먼저 첫 번째로 주체에 관한 논의부터 하겠음. 징계 및 제재 논의의 주체를 2월 21일 방문자였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 셋에 관해서 할지 아니면 다르게 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음.

공과(정) : 다름이 아니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후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때 SNS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SNS 멘트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라는 멘트가 있었는지?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아무 멘트도 없고 사진이 촬영된 것인 걸로 앎. 첫 번째 방문 2월 21일 방문 시에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님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 업로드가 되었고 두 번째 방문 3월 18일 때는 아무런 언급은 없었지만 사진이 올라간 상황이었음.

공과(정) : 이때 기자회견 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언급도 없었고 그렇다 할 증거도 없으니까 저는 이때 총학생회장단이란 전략조정실장님 이렇게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동연(정) : 저는 반대하는 의견임. 장예찬 후보가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3월 8일 날 단독으로 난고 발언에 대해서 처음 논란이 됐었음. 2월 21일은 장예찬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2월 21일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징계안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함. 그리고 아까 인문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장예찬 후보 개인이 SNS에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분들이라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한 인원들에게 본인들이 사인으로서 간 것인지 아니면 부산대학교를 대표해서 간 것인지에 대한 해명을 먼저 듣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생각한 바로는 논점을 둔 부분이 장예찬 후보자가 나쁜 사람이어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음. 언행이 부적절하고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곳에 총학생회장이 방문하여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장으로서 부산대학교의 학우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느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여서 그에 관해서는 2월 21일에 참가하였던 세 인원에 대해서 모두 징계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함.

사범(정) : 그래서 본인도 어찌 됐든 2월 21일에 올라온 글로 인해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분들을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인문(정) : 본인은 징계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징계안에 대한 의문 중 하나가 총학생회장단과 임원들이 가서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했느냐 그리고 그 목적으로 방문을 했느냐 그리고 징계는 총학생회장단과 임원들이 직접 그런 멘트를 사용했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멘트를 써서 SNS를 올린 주체도 후보자이고 왜 갔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단지 그 사진 같이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것도 총학생회장과 임원들이 올린 것도 아니고 후보자 개인이 올렸는데 이게 오해를 받게 되면 이렇게 징계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장 후보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사진만 보고 지지함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추측해서 징계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안 좋은 선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듬. 그래서 징계 부분에 대해 부디 사안의 중차대함을 숙고하시어 이에 대한 마땅한 처우를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함. 어떤 사안이 지금 중차대하다는 건지 이 논란을 만든 주체가 단순히 방문했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모르고 단지 사진 한 장과 장 후보가 쓴 멘트 때문에 지금 학우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징계안을 올려서 총학생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어떤 권리, 직무에 대한 제재가 있기 전에 먼저 오해를 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함.

경통(정) : 일단은 이 후보분이 만약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분들이라고 올리지 않았다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및 전략조정실장 세 분이 갔는지 또는 안 갔는지 그리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의 지위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던 길이었고 어쨌든 올라갔으니 그 후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갔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었고, 만약에 정말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간다고 하면, 또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얘기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후 통보 비슷하게 사진이 찍혀서 사실 도둑질해서 남한테 걸려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안을 계속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과(정) : 일단 징계안이 상정되었고 지금 사실 확인도 안 된 부분도 많으니까, 본인은 지금 총학생회장이나 부총학생회장 아니면 전략조정실장님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지?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명을 듣기 전에 징계 및 제재를 논의할 그 대상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예술(정) : 저희가 세 분에게 소명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분의 이름을 징계위원회에 올리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세 분을 불러서 소명을 들어야 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세 분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간사 : 2월 21일 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논의하자는 것 같음.

경통(정) : 이것과 밑에 무소속 두 개를 따로 논의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기 위를 세 번을 하시고 밑에는 단독으로 혼자 소명을 하는 건 어떤지?

의장 권한대행 : 의견 주신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음. 왜냐하면 2월 21일 자에는 세 분이 모두 참석하셨지만, 3월 18일 자에 관해서는 총학생회장님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지금은 인원에 대해서 분리하였다면 방금 경제통상대학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날짜로 기준이 되어서 분리가 될 것 같음.

인문(정) : 지금 우선 징계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날짜로 구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함.

경영(정) : 지금 안건이 일단 처벌이나 그런 걸 하는 안건은 아니고 징계 대상만을 정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상만 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기타 질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지금 나온 안건 상으로는 날짜를 기준으로 2월 21일 자 방문에 관하여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에 관한 징계 및 제재 논의를 한 번 한 이후에 3월 18일 자 방문에 관한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음. 이것에 관해 의결을 한 번 봐도 되는지? 총학생회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해서 2월 21일 자 방문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를 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4. (2024. 2. 21.) 국회의원 후보자와 만난 것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의장 권한대행 :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 다음은 3월 18일자 방문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를 한 다음에 관하여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5. (2024. 3. 18.) 국회의원 후보자와 만난 것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 반대: 인문(정), 공과(정)

※ 기권: 사범(정), 예술(정)

5. (2024. 2. 21.) 국회의원 후보자와 만난 것에 대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 징계 심의에 관한 건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음. 2월 21일에 방문한 총학생회장 이창준, 부총학생회장 서승범, 전략조정실장 이현주에 관한 징계 및 제재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이것에 관해 소명을 먼저 듣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간사 :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총학생회장께선 인근에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음. 아무래도 본인도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예술(정) : 부총학생회장께선 건물 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간사 : 그렇다면 부총학생회장까지 가능하나 시간을 조금 주시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문(정) : 혹시 두 명의 소명만 듣는 것은 어떤지?

공과(정) : 세 분이 같이 갔으니 두 분만 들어도 된다고 생각함.

간사 :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람.

의장 권한대행 : 그럼 일단 두 분만 모시는 걸로 하는지? 그러면 두 분만 모시는 걸로 하겠음.

인문(정) : 어디에 앉아서 소명을 하시는 것인지?

간사 : 이쪽 두 자리에 앉아서 소명을 하실 예정임.

의장 권한대행 :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징계안은 신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디로 부산대학교 학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징계안을 계속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으며, 중운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징계안을 상정하였음. 또한 날짜를 구분하여서 2월 21일 자에 방문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에 관하여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별도로 3월 18일 방문한 총학생회장님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가 따로 이루어질 예정임. 현재는 2월 21일 방문에 관해서 저희가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한 소명을 듣고자 함. 지금부터 그날의 전반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 그리고 해명할 것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음.

총학생회장 :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괜한 일로 조금 불편한 시간을 만들게 된 것 같아서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학우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소명을 시작하겠음. 일단은 조금 정정해야 할 것이 있음. 2월 21일 자에 갔다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방문한 일자 2월 18일임. 2월 18일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 이렇게 3명이 같이 갔음. 그리고 이는 며칠 전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왔었음. 그 이유는 전반적인 학생 사회에 대한 현안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후보자의 취지를 들었고 그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으로서 알았다고 하고 두 분을 더 모시고 갔음. 갈 때는 참모를 모시고 갔다고 표현을 하고 싶음. 그리고 다 같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이 직함을 가지고 부산대학교를 대표해서 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림. 가서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 세 명과 장예찬 후보 그리고 두 분 정도 이렇게 총 6명이 논의를 진행함. 논의의 주된 내용은 약 두 가지였음. 두 가지였고 요새 학생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후보로서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방안을 추진해야 학생들이 좋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셨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첫 번째는 혁신도시법 개정임. 혁신도시법 개정은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법임. 그 법이 개정되어야만 향후에 있을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김. 이에 혁신도시법 개정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산업은행과 같은 현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부산 지역으로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음. 이는 일반적인 사립대 총학생회장들의 요구보다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총학생회장 그리고 전국국립대학생연합회의 총의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린 사안임. 왜냐하면 지역거점국립대학의 책무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부산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입학하고 교수님들이 인재를 양성할 때 그 목표는 부산 지역에 정주하여 학생들이 부산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거점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의 목표임. 하지만 학생들은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많이 생김. 그에 대한 이유는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판단했고 이에 관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 그리고 부총학생회장님과 전략조정실장님께서도 본인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장예찬 후보자와 그 참모진도 동의를 해주셨음. 그날 나눈 얘기는 이상임. 이상이고 이거와 별개로 후보자와 둘이 나눈 얘기는 일절 없음. 그날 얘기는 약 20분 정도 지속된 것으로 기억하며, 나가기 직전에 “우리 사진 한 컷 찍읍시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음. 그래서 이야기도 훈훈하게 마무리됐고 좋은 뜻에 사진을 찍자는, 같이 기념해서 사진 한 장 찍자는 의도로 저희는 파악했고 3명이 다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음. 일단 흘러간 상황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말씀드린 전부인 것 같음. 이상임.

의장 권한대행 : 잘 들었고 지금부터 총학생회장 이창준 님의 소명에 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중운위 위원께서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램. 본인이 먼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 분이 방문하셨을 때 참모의 신분으로 가셨다고 함에 있어서 부총학생회장님과 전략조정실장님께서도 참모 신분으로 갔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총학생회장 : 통틀어서 참모라고 일컬은 것이고 부총학생회장님 그리고 전략조정실장님 이렇게 간 것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추가로 학생 사회 현안과 혁신도시법 개정에 관해서 논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음. 하지만 학우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든 증명이 되어야지 학생분들이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산대학교 학우분들을 위해서 간 거라고 소명이 될 것 같음. 혹시 그것을 증명할 만한 녹취록이나 회의록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사안이 이렇게 사건처럼 다뤄질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음. 다들 아시다시피 20분 가량 간단하게 얘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녹취할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함. 그리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간담회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럴 이유가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방금 의장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인정하고 동의를 함. 따라서 내세울 수 있는 물질적인 증거나 자료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히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 2만 명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공식적인 답변을 내드리자면 딱 그 두 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눴음. 만약 그 이외의 발언이 있었을 시에는 그 어떠한 형사적 처벌이라도 감수하고 감내하도록 하겠음.

의장 권한대행 : 다른 질의 사항이 있는지?

동연(정) : 혹시 참모 자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선거 캠프에 당직을 맡으신 것인지 아니면 선거 캠프에 그냥 들어가신 건지, 그냥 사인 자격으로 간 것인지가 궁금함.

총학생회장 : 참모라는 표현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부총학생회장님과 전략조정실장님을 일컬을 때 말씀드리기가 좀 길어서 제 참모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기 세 분이 나오신 분은 후보자님과 그 캠프에 계시는 두 참모님이셨고 그분들은 캠프에서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안 나지만 후보자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두 분이었음.

의장 권한대행 :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이해한 바로는 이제 장예찬 후보님의 참모로 두 분이 나오셨고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장님의 참모의 역할로 부총학생회장님과 전략조정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음.

동연(정) : 그럼 총학생회 구성원은 선거 캠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문을 한 것인지?

총학생회장 : 자문이 아니라 저희는 그냥 요청에 응했고 그냥 방문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기타 질의 사항이 있는지?

총학생회장 : 조금 더 소명을 해도 되는지?

의장 권한대행 : 그렇게 해도 됨.

총학생회장 : 혼자 가도 될 텐데 왜 두 분을 모시고 갔냐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은근히 계셨음.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 추가로 설명하고자 함. 나중에 다룰 사건과는 다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자리였음. 그래서 총학생회장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출마한 선출직 메이트인 부총학생회장님 그리고 총학생회 전반적인 총괄을 하고 계시는 전략조정실장님의 힘을 합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판단하에 두 분을 모시고 함께 가게 되었음.

인문(정) : 제가 해당 주차랑 다음 주차까지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함. 그래서 혹시 확운위 보고 안건에 있었는지?

총학생회장 : 이 내용은 없었음.

의장 권한대행 : 한마디로 장예찬 후보자와의 만남을 가졌던 내용에 관해 물어보신 것이 맞는지?

인문(정) : 그러함.

의장 권한대행 : 기타 질의 사항이 있는지?

나노(정) :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자리라고 했고 개인적 연락으로 전반적 학생 사회에 대한 현황을 궁금해하신다고 하셨지 않았는지? 그래서 공식적인 요청을 받았다는 근거 자료가 혹시 없는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현재 의문점을 가진 학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음.

총학생회장 : 서류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쪽 캠프에 계신 참모분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음.

의장 권한대행 : 추가 질의 사항 받겠음. 질의 사항이 없으면 부총학생회장님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음. 질의 사항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람.

자연(정) : 본회의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후보자님과 공공기관 유지와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당선이 된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에게만 가서 이것을 피력을 한 것이 과연 공공기관 유지와 특별법에 대한 어필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모르겠음. 그러니까 실제로 총학생회장님께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걸 어필하러 가셨다면 해당 후보자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분들께도 이걸 어필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한 후보에게만 가서 이것을 어필한 이유에 관해 여쭙고 싶음.

총학생회장 : 첫 번째 질문은 당선이 되지 않았는데 왜 후보자를 찾아갔냐는 질문을 해주셨음. 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 관점이 있었음. 첫째는 제가 아는 정치인이라는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큰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현직에 계실 때, 특히 당선되고 난 뒤에는 도통 연락이 되지 않음. 연락이 되지 않고 특히 지금 같은 선거철에는 오히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함. 그래서 연락이 오셨을 때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 것이었음. 그래서 그리고 만약 갔었을 때 왜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게 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여 주셨는데 그 이유는 일단 연락이 오지 않았음. 그리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상대 정당에 어떤 참모들이 있는지 후보자의 연락처라도 조금 있었으면 연락을 취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연락을 취할 방법은 없었음. 그래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생각으로 방문하였음.

자연(정) : 그럼 총학생회장님께서서는 해당 후보자의 캠프에 방문하실 때 이 참석 자체가 정치색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신 것인지?

총학생회장 : 본인은 완전 정치에 관한 내용을 아예 얘기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그리고 제 생각 내에서는 정치라는 개념은 논외였음. 특정 정당이 됐든 특정 후보가 됐든 제게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그 사람들은 본인에게는 모두 그저 본인이 원하는 이 학생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경영(정) :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음. 첫 번째 질문은 정말로 여기 방문하실 때에는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할지를 전혀 모르고 방문하신 것이 맞는지?

총학생회장 :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본인의 실책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생각해야 했으며, 특히나 이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사진이라고 생각함. 본인은 그 후보자가 사진을 후보자 또는 참모가 제게 이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SNS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음. 그리고 장예찬 후보와 저는 약 7~8년간 아는 사람으로 지내왔었음.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아는 사람으로 지내왔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동생으로서 사진 한 컷 찍자는 의도로 파악했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찍자고 해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사진이 이러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음. 죄송함.

경영(정) : 두 번째 질문은 총학생회장님이 저희 부산대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달하러 간 목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장예찬 후보자의 지역구를 수영구로 알고 있는데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저희 부산대학교가 있는 금정구라는 지역구도 아니고 부산광역시장도 아니고 앞에 말했듯이 당선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가서 얘기했을 때 과연 우리 부산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어떤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듭. 정리를 하자면 당연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가신다고 선택을 하실 때 부산광역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산대학교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연락에 응했는지 궁금함.

총학생회장 : 부산대학교 해당 지역구인 금정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본인에게 연락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지역구도 아닌 수영구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왜 찾아갔냐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은 이러함.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과 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업 이전을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금정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함. 하다못해 제주도에 있는 분이 본인을 부르셨다면 본인은 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다양한 분들에게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만이 딱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이고 그 이후의 역할은 그 후보자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함.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이제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할 때 내걸었던 공약인 GPA 환산 규정 개정이 있었음. 그 공약을 내걸었을 때 학우분들 그리고 심지어 대학 본부도 존재와 개정의 필요 자체를 몰랐음. 저는 그때 살짝 충격을 받았음. 이미 수도권에서는 21년부터 개정을 했었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대학 본부의 모습에 이렇게 말만 해도 알 수 있게끔 된다면 그 어디라도 학생들한테 도움만 된다면 그 어디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총학생회장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함. 이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음.

자연(정) : 소명 관련한 질문은 아닌데 총학생회장님께서 그 사진을 게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게시하지 않는지? 근데 장 후보께서 어쨌든 게시를 하였고 이게 어떻게 보면 2만 부산대학교 학우들의 지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총학생회장님은 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

총학생회장 : 그 부분에 관해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사건이 터지고 그 후보와 일체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음.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기에 스스로 판단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음.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게시되어 있는 그 사진들과 관련된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사에 난 것들도 만약 중운위에서 의결만 내려주신다면 페이스북은 삭제해 주실 것 그리고 기사는 정정 보도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음.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은 여기서 방금 소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현실성을 말씀드리고 싶음. 어떻게 보면 장예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어제가 중요한 날이었을 것임. 선거 캠프를 시작하고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쉽게 내려줄지 하는 생각이 듬.

총학생회장 :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함.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기사를 내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자 의무임. 그래서 그 의무를 저버리라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부산대학교 학우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운위에서 그러한 의견을 주신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학우들의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보겠음.

의장 권한대행 : 혹시 부총학생회장의 소명을 듣고 저희가 논의를 해봐도 되는지? 추가적으로 소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부총학생회장 : 일단 본인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총학생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설명해 주신 대로 본인은 이제 옆에 배석하러 갔고 그때 요청을 받으시고 난 뒤에 저한테 제안해 주신 대로 학생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의견을 내려 간다고 같이 갈 수 있겠냐고 20분 정도 걸린다길래 혁신도시법과 관련하여 좋은 얘기라고 하셨음. 그래서 일단 같이 가서 본인은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서 동의한 후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 외의 일절 이야기는 전부 동일하기에 같음하도록 하겠음. 그 뒤로도 그전에도 그 언제라도 장예찬 후보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음을 전 당연히 증빙할 수 있고 또한 요청한다면 당연히 응하겠음. 이상임.

의장 권한대행 : 지금부터 소명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2월 18일 자 방문에 대한 징계 및 제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방문은 2월 21일이 아니고 18일이라고 정정을 해주셨기에 2월 18일 방문에 대한 징계 및 제재 논의를 하겠음.

인문(정) : 2월 18일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논의를, 질의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소명인들 앞에서 하는 것인지?

의장 권한대행 :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으신지?

인문(정) : 이걸 의장 권한대행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이걸 중운위 위원께서 불편하시다면 소명인이 없는 상태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음. 없는 것이 괜찮으신지?

인문(정) :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지금 물증도 없고 어떤 기록물도 없고 이제 어떤 개인의 말에 우리가 의존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소명인이 없는 자리에서 저희끼리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소명인들이 우리의 논의를 듣고 중간에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소명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함.

의장 권한대행 :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임. 혹시 이것도 의결을 봐야 하는 것인지?

간사 : 질의해 주신 내용이 중운위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관해 의문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0장 제89조 2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람.

의장 권한대행 :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운위 또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 징계 및 제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은 당사자를 제외한 중운위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음.

간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운위에서 결정하신다면 본인은 의사 개진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회칙상으로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으나 소명인이기 때문에 이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문(정) : 본인은 1번 안건의 징계안과 방금 소명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서 소명인을 제외하고 중운위 위원끼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회칙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함.

의장 권한대행 : 그럼 이 부분도 의결을 통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은지?

간사 : 만약 진행하신다면 의결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결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정) :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공개로 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숨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음.

의장 권한대행 : 본인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됨. 원칙상으로는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결 진행을 하도록 하겠음. 징계 및 제재의 발의가 총학생회장단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을 위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징계위원회에 소명인 자격으로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6. 징계위원회 심의 장소에 소명인 자격으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지속하여 참석하는 것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 부결 ”

※ 반대: 사범(정), 자연(정), 경통(정), 예술(정), 경영(정)

※ 기권: 나노(정)

의장 권한대행 : 의결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소명인 분들께선 퇴장하셔도 좋을 것 같음.

사범(정) : 타이밍은 놓쳤지만 하나만 여쭙봐도 되는지?

의장 권한대행 : 소명에 관한 부분은 해주시면 될 것 같음.

사범(정) : 입장문을 보면 R&D 토론회에 2월 22일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커뮤니티 게시글이 거짓일 수도 있겠지만 해당 내용에 따르면 총학생회장께서 한 번도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함. 그러니까 해당 자리에 간 것 같은데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고, 본인 기억에 따르면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생회비 출장비를 사용했었는지?

총학생회장 : 의결을 받았음에도 본인 사비로 지출하였음.

사범(정) : 그럼 그 자리에는 가신 것이 맞는지?

총학생회장 : 안 그래도 오늘 그와 관련해서 채널PNU와 인터뷰를 했었음. 특정 커뮤니티에서 그곳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말이 나왔다고 함.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돌려보시면 아실 수도 있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 비서실을 통해서, 의원회관에서 진행하는 토론회 같은 경우는 방문록을 적게 되어 있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알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음.

의장 권한대행 : 확인하였음. 기타 소명에 관한 질의가 없으면 소명인은 이제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음. 고생하셨음. 그렇다면 2월 18일 자 방문에 관해서 징계 및 제재 논의를 하겠음.

공과(정) : 공과대학 출범식 일정으로 인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노트북이 필요한지라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개의 요건 그대로 충족하는지?

간사 : 그러함.

공과(정) : 그럼 빠르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음.

의장 권한대행 : 그럼 징계 및 제재에 관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음. 일단 본인의 의견으로는 결과만 보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인문(정) : 의장 권한대행께 죄송하지만 공과대학 총학생회장께서 자리도 비운 김에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5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떤지?

의장 권한대행 : 다른 위원분들은 괜찮으신지? 그럼 5분 정도 정회하고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음.

(약 5분 간 정회 후 다시 개의)

의장 권한대행 :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음.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어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 현재 2월 18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예찬 후보자의 선거 캠프인 수영구 캠프를 간 것은 지나간 결과임. 방문을 한 건 사실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 사회에 대한 현안 논의, 혁신도시법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해 간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증명이 되지는 않음. 또한 초청받았다는 사실조차 증명이 되지 않음을 소명을 통해 들었음. 그리하여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그저 2월 18일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예찬 후보자의 선거 캠프를 방문하였으며 그 이후에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님과 임원님들이라는 명칭으로 후보자 공식 SNS에 업로드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대학교 학우분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부산대학교 학우를 대변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민의힘 선거 캠프를 갔다는 것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대학교 학우를 대변하는 총학생회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임. 그로 인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람.

인문(정) : 본인이 생각하기에 일단 학우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은 사진이라고 생각함. 사진과 장예찬 후보가 SNS에 올린 글들로 인해서 오해가 불거졌는데 저희가 이 글과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혹은 총학생회장의 소명 내용을 신뢰하느냐가 징계 여부의 논점이 될 것 같고, 본인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는 부분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 세 명이 방문을 해서 그 후보를 지지했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이렇게 물의가 될 법한 사안의 주체가 장 후보인 점, 그리고 총학생회장단과 전략조정실장이 부산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관련된 행동이 없기에 저는 징계 처분에 반대함. 그리고 이렇게 오해가 불거져서 학우들로부터 불신을 사게 되었을 때 같은 학운위의 동료로서 '먼저 해명할 기회를 조금 더 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음.

의장 권한대행 : 다른 의견 또 받도록 하겠음.

경통(정) : 소명을 들어봤을 때 총학생회는 보통 대부분 총장 선거 토론회 때도 그렇고 공문이나 자료나 항상 남기는데 물증 기록도 없고 아까 들었듯이 학교를 대표해서 갔는데 보고 안건에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공식 요청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본인은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함.

인문(정) :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것이 어떤 물증이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물증이 남아 있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갔다고 하면 그리고 장예찬 후보도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어떤 정치적 유착을 바탕으로 한 지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도 본인은 조금 의문임. 내가 여기 캠프에 가서 지지한다고 밝혔을 때, 실질적으로 이 방문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한다는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인데 이게 물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물증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아서 징계 처분의 기준이 되기에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한 마디 하도록 하겠음. 본인의 개인적인 사건으로서 지지 여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도로 방문을 했는지 또한 저희가 알 수 없음. 증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그래서 제가 논점으로 삼고 싶은 것은 그저 방문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진이 찍혔고 그로 인해서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이 같이 사진을 찍었으며 한마디로 특정 정당 선거 캠프에 방문한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함. 어떻게 보면 학생 사회에 있어서 학생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바여서 징계안을 상정하고자 함.

동연(정) : 2월 18일에 방문한 것은 아까 총학생회장님의 소명처럼 부산대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유력 정치인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충분히 소명이 잘 됐다고 생각함. 그래서 2월 18일은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3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단독 보도를 통해서 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이 하루하루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논란이 된 것 아닌지? 그리고 만약 장예찬 후보가 논란 없이 현재도 그냥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였고 그걸 페이스북에 2월 18일과 3월 18일에 올라왔다고 해도 학생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임. 근데 3월 18일 지금 문제가 된 것은 3월 8일 보도 이후로 장예찬 후보의 개인적 자질에 문제가 있고 그것을 앞에도 이창준 총학생회장이 참여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2월 18일과 3월 18일의 건을 다르게 보아서 3월 18일은 징계를 하여야 하고 2월 18일 건에는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의장 권한대행 : 근데 지금은 2월 18일에 관한 건이니까 2월 18일에 관한 건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경통(정) : 옆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순서가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처음에 논란의 시작은 밑에 그게 아니고 위에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누가 뉴스를 보고 무소속까지 따라갔다고 이게 순서를 좀 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림. 그래서 이게 무소속이 아니면 논란이 안 됐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는 일단 이 위에 2월 18일 자가 먼저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냥 좀 정정하는 느낌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임.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생각하는 바에도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의 발언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 바임. 앞서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문제가 됐었던 건 2월 18일에 방문한 것이었음. 그리고 만약 장예찬 후보자가 청렴결백한 후보자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탈당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었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

인문(정) : 본인은 이 캠프의 방문과 사진을 두고 징계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함.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으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 세 명이 동행해서 어디 다른 곳에 가다가 잠시 화장실이 어디냐 혹은 물 한 잔만 좀 급하게 얻어 먹을 수 있겠냐고 잠시 캠

프를 들어갔을 때 어떤 사진이 찍혀서 너네 왜 갔냐고 여론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한 거고 사진이 찍혀서 어떻게 유포가 됐으면 이것도 같은 사안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이렇게 보면 물증도 없고 기록물도 없으니까 학생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후보자와 단 둘이 담론을 안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20분이 걸렸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사진 촬영을 먼저 제안받았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방문 요청을 먼저 받았다는 것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명을 너무 간과하고 단순히 방문 자체와 사진 자체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 그러니까 본인의 말은 나름 큰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극단적인 상황까지 대입을 해서 정말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정확한가를 따져봤을 때 단순히 방문 자체와 사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우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장 후보의 개인 SNS에 올라온 어떤 글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글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이 주체가 아닌 장 후보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면 장 후보로부터 저희가 어떤 소명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봄. 징계를 하기에는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

사범(정) : 본인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됐든 2월 18일에 방문하고 2월 21일에 올라온 글이 논란이 된 것은 어제 3월 18일에 학생회장 그러니까 학생회장 신분이 아니고, 이창준 개인의 자격으로 방문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발굴이 된 것임. 발굴이 되어서 논란이 된 것인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소명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함. 일단 뭔가 정황상으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 그렇지만 이게 어찌 됐든 이렇게 엮여서 뭔가 정치적인 오해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 것이 생긴 부분은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본인의 과실 내지 불찰이어서 개인적으로 만약 장예찬 후보가 이런 것들에 대해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사실 보도 같은 것이 된다면 2월 18일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함. 그렇지만 만약 장예찬 후보 측에서도 이 사람들이 본인을 도와주러 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반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음. 그래서 결론은 지금 당장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살짝 무리가 있어 보임.

의장 권한대행 : 다른 의견 있으신지? 본인이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자면 본인은 일단 첫 번째 인문대학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는, 인문대학 학생회장님과 사범대학 학생회장님께서 소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고 이걸 무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본인은 솔직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음. 소명은 증명의 바로 아래 단계로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종의 약한 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함. 녹취록과 의사록이 하나도 없으며 공식적인 공문을 통한 방문 요청 또한 없음. 그저 전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소명인의 얘기밖에 없어서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며 만약 소명이 확실하게 되어서 그 의도가 생산적이었고 부산대학교를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다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 본인은 그것이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냥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특정 정당을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그곳에 감으로써 부산대학교 학우들이 그쪽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 사실마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문(정) : 본인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리고 이 오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나 혹은 사과문 정도의 대응은 있어야 한다고 봄. 그러니까 사진을 같이 찍었고 장예찬 후보가 올린 SNS 게시물과 사진이 함께 엮여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전략조정실장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징계를 주게 된다면 이 오해도 어쨌든 근거가 있는 오해는 아니지 않은지? 지지를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지를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해를 해서 징계를 내리기에는 징계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징계를 내

리기에도 증거가 조금 불투명하다는 생각임.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의 사건으로서는 본인은 지지가 아닌 방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경영(정) : 본인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 총학생회장님이 그곳을 좋은 목적으로, 우리 부산대학교의 이익을 위해서 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냥 사실만을 놓고 얘기해 보자면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 총선 한 달 반 전에 다른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 캠프에 갔다라고 본인은 생각함. 가서 좋은 내용의 논의를 했든 어쨌든, 장예찬 후보자의 이미지가 좋거나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을지언정 본인은 국가 선거 기간에 우리 학교의 총학생회장이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징계를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함. 다만 징계를 내리지만 그 수위에 관해서는 소명에 대해 참작하든, 그 이후에 논의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함.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징계 유무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함.

인문(정) : 본인은 이 방문과 사진에 계속 초점을 두는 것이 조금 다른 사안에 대입을 해보자면 총학생회장이 어떤 채용을 앞둔 기업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럼 개인적으로 채용을 앞둔 기업에 방문을 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방문 자체를 가지고 한다면 그 어떤 의도와 거기서 주고받은 내용을 전부 하루 종일 동영상이나 녹취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단순히 방문했다 그리고 사진이 찍혔다는 것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징계를 내리기에는 조금 과한 판단이라고 계속 생각이 듭. 본인은 방문을 한 것이 잘했다 또는 못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론을 보면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 자체가 모두 익명성을 띠고 있고 실명을 밝혔다 하더라도 익명 댓글에서 실명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려우나 그것도 부산대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이라고 봤을 때 징계를 내린다고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할 것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론에 휘둘려서 판단하는 것인지 잘 헤아렸으면 함.

예술(정) : 질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단순히 권고 사항으로라도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의장 권한대행 : 아마 징계 사항 중에서 사과문 권고 같은 것이 있을 것임. 그것 또한 징계 사항이 될 것 같음.

예술(정) : 저희가 징계를 부여하지 않고 사과문 작성하는 것에 대해 권고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 것인지?

의장 권한대행 :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예술(정) : 그렇다면 본인도 인문대학 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 증거가 불충분해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증거가 불충분해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소명하러 와주셔서 말씀하셨을 때 소명으로도 나쁜 목적으로 가신 건 아니라고 판단이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징계까지 내릴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음. 그래서 차라리 사과문을 징계 사항으로 내리기보다는 권고사항으로라도 학생들에게 표명이 된다면, 지금 올려주신 입장문으로는 제대로 표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입장을 다시 표명하여 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듭.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은 사안이 엄중한 만큼 사과문 권고라고 하더라도 징계 사안으로 사과문 권고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임. 왜냐하면 이는 2만 효원인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고 그에 대한 엄중함을 알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 사과문 권고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임. 만약에 사과문 권고가 징계 사항이 된다면 이라는 가정임.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만약 기타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은 2월 18일 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전략조정실장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내리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결을 받은 이후에 그 수위에 관해서 논의하고 찬반 의결을

받을 예정임.

간사 : 오늘 전략조정실장께선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의결을 하실 때에는 한 분씩 징계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권한대행 : 그럼 한 명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기타 질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의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음. 2월 18일 자 방문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7. (2024. 2. 18.) 총학생회장 이창준 징계 및 제재 여부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 반대: 공과(정), 인문(정), 동연(정), 예술(정)

※ 기권: -

의장 권한대행 : 안건이 가결되었음. 다음 의결 안건은 2월 18일 자 방문에 관하여 부총학생회장 서승범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8. (2024. 2. 18.) 부총학생회장 서승범 징계 및 제재 여부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원안 부결 ”

※ 반대: 인문(정), 생과(정), 동연(정), 공과(정), 예술(정)

※ 기권: 경통(정), 나노(정), 자연(정)

의장 권한대행 : 안건이 부결되었음. 다음 의결 안건은 2월 18일 자 방문에 관하여 전략조정실장 이현주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9. (2024. 2. 18.) 전략조정실장 이현주 징계 및 제재 여부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3명의 찬성으로 원안 부결 ”

※ 반대: 인문(정), 생과(정), 동연(정), 공과(정), 나노(정), 예술(정)

※ 기권: 자연(정), 경통(정)

의장 권한대행 : 그렇다면 2월 18일 자의 징계 수위에 관해서 결정할 것은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관한 징계 수위 결정만을 하도록 하겠음. 의견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범(정) : 이게 세칙을 따라야 해서 안타깝긴 한데 만약에 징계 사항에 사과문이 없었으면 권고를 해서 사과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인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고 방문 사실 자체가 문제는 된다고 생각을 함. 그렇지만 정황상 봤을 때 부산대학교를 위해 방문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사과문 정도로 다시는 정치와 관련된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느낌으로 사과문을 징계 수위로 했으면 좋겠음.

예술(정) : 징계 부분에 1호부터 6호까지 징계 수위가 나와 있음. 이 중에서 지금 상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됨. 근데 2호부터 6호까지는 사실 그것이 적용이 됐을 때 과연 이 상황에 맞느냐는 의문이 들어서 본인도 사과문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함.

인문(정) : 본인도 오해를 소지를 만든 것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서는 2만 학우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함. 그러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을 할 정도로 그 사안

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도 사과문 권고로 징계 처분을 했으면 하는 의견임.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음. 본인 사건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견만을 모아서 2만 회원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의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함. 그리하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좀 더 깊은 논의를 해본 이후에 제21조에 따라서 충분한 소명이 그 자리에서 되었다고 생각하면 서명을 해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해임 안건 발의에 대한 의사 결정도 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임. 요약하자면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서 대의원분들을 대상으로 소명을 진행한 다음에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징계안을 상정하든 아니면 해임 결의를 하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됨.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자연(정) :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의장 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3절인지?

의장 권한대행 : 본인이 말한 것은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위에 있는 제21조를 말하고 있음. 중앙운영위원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통해 소명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자연(정) : 그럼 저희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였고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해임 결의로 하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정정하겠음. 사과문 권고를 하되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소명하고 그에 대해서 의결 받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견을 변경하겠음.

동연(정) : 본인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님의 말씀에 반대함. 제21조를 보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안은 이런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함.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함.

사범(정) : 본인도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의 의견과 비슷한 것이 2월 18일 여기에 자꾸 3월 18일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듦. 그래서 2월 18일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임 결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음.

예술(정) : 해임 결의는 대의원총회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그래서 권고를 하자고 했음.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견을 바꾸었음.

예술(정) : 그것 또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대의원총회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사과가 안 받아들여졌다, 해명이 안 됐다 하면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들이 결의하는 것이 아닌지?

의장 권한대행 : 알겠음. 기타의 질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의견이 대부분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로 좁혀진 것 같음. 기타의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로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를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해 보도록 하겠음. 기타 질의 사항이 있으신지? 그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 2월 18일 자 방문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한 징계 및 제재로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를 권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10. (2024. 2. 18.) 총학생회장 이창준 징계 수위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 반대: -

※ 기권: 경영(정), 동연(정)

경통(정) : 그럼 사과문 게시를 할 때 게시하는 대상이 총학생회장만인지?

의장 권한대행 : 그러함.

자연(정) :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호는 사과문인데 제 생각에는 오늘 아침에 올라온 입장문이 학우들의 많은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소명이랑 같이 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

인문(정) : 오프라인 사과문이랑 온라인 영상 사과문이라서 입장문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닌지?

자연(정) : 오늘 아침에 올라온 입장문이 학우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과문과 더불어 한 번 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지?

의장 권한대행 : 그럼 징계안으로는 사과문 권고를 하되 추가로 징계안이 아닌 것으로 좀 더 명확한 소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음.

간사 : 관련해서는 의결을 한 것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의장 권한대행 : 알겠음.

간사 : 그리고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프라인 사과문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인문(정) : 게시판 게시일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부산대학교 내 대자보처럼 오프라인으로 되지 않을까 싶음.

간사 : 그러면 그렇게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겠음. 그다음에 온라인 영상 사과문은 정확하게 어디 하시는 걸로 희망하시는지?

의장 권한대행 :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이 공식 소통 창구라고 생각이 됨.

예술(정) :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사과문이 꼭 영상이어야 하는지?

의장 권한대행 : 여기에는 영상이라고 되어 있음.

경통(정) : 15~16년도에도 사과 영상이 올라왔었음.

인문(정) : 권고임.

간사 :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술(정) : 그러면 영상이 아니라 혹시 글로 바꿀 수는 없는지?

간사 : 그러니까 이것이 권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의사를 총학생회장께 전달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 이걸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임.

의장 권한대행 : 권고이기 때문에 아마 징계 대상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사과문은 권고 사항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듦. 기타 사항이 없으면 두 번째 3월 18일 자 방문으로 넘어가도 되는 지?

6. (2024. 3. 18.) 총학생회장 이창준 방문에 따른 징계 심의에 관한 건

의장 권한대행 : 이것과 관련해서도 소명을 한번 받도록 하겠음. 이번에는 총학생회장님 혼자 오시면 될 것 같음. 이번에는 3월 18일 자 무소속 장예찬 후보자 출마 기자회견에 방문하신 건에 대해서 그때 상황을 소명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음.

총학생회장 : 일요일 저녁에 장예찬 후보의 참모로부터 전화가 왔음. 전화가 와서 내일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서 총학생회장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아 온 사이가 있기에 가서 인사만 해주고 오라고 연락을 받았음. 그래서 이 자리는 일로 가는 자리도 아니었고 오로지 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총학생회장이든, 전략조정실장이든 지인은 모시고 가지 않았음. 그리고 갈 때는 부산대학교 뱃지를 달고 가지 않았음. 잠시 서면 쪽에서 넘어오는 길에 시청에 내려서 잠깐 들렸음. 잠깐 들렸고 들어서 가보니 그 행사의 중반쯤이었음. 그래서 끝나면 나올 테니 밖에 나오면 인사만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문밖에 있었음. 문밖에 그냥 뒤에 쭉그리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이 끝나고 보니까 무소속 선언을 하셨었음.

그래서 그러셨는가 보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려고 했으나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한다고 했음. 그래서 뒤에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참여하신 분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높으셨음. 그래서 사진을 막 찍으시는데 주변에서 젊은 본인을 보시더니 젊은이 여기 있다고 젊은이 앞에 가서 사진 세워라고 해서 사람이 우글우글 많을 때 앞으로 거의 끌려 나갔음.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됐음. 그리고 거의 기자들이 반 정도 나간 상황이었음. 카메라도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니고 약간 휴대폰 카메라들이 매우 많았어서 그렇게 큰 매스컴에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도 몰랐고 그리고 기념촬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소장용 정도겠다 딱 그정도로 생각을 했음. 이 정도로 파장이 올 줄은 몰랐고, 근데 이 사진이 공개가 되고 조금 많은 파장이 일어난 것 같아 2월 18일에 있었던 부분은 업무적으로 간 것은 맞지만 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 적인 부분도 아니었고 오로지 제 친분에 의해서 간 것이었음. 그래서 제가 공인인 걸 앞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게 반성하고 있음. 반성을 하고 있지만 학우분들께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소명을 해드리면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업무차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이름을 대표해서 간 자리가 아님. 오로지 본인 개인 이창준과 장예찬이라는 사람과의 관계 그 두 명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의 자리도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음. 소명 마치겠음.

의장 권한대행 :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없으시다면 소명인을 퇴장시켜도 되는지? 알겠음, 고생하셨음. 그럼 지금부터 3월 18일 자 방문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이창준의 징계 및 제재 논의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음.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2월 18일과 3월 18일의 경우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바임.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종교, 신앙 그리고 정치적 견해의 자유는 존재한다고 본인은 생각함. 그리하여서 2월 18일 자에는 결과적으로 학생을 대표하는 자리로, 사람으로서 가게 된 것이고 3월 18일의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마디로 개인의 사생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인문(정) : 의장 권한대행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함.

예술(정) : 본인도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 앞에 이미 사과문 게시라는 징계가 올라갔고 두 번째로 부산대학교의 대표가 아닌 개인으로 간 것이고, 세 번째로 관련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계신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해서 징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함.

의장 권한대행 : 다른 의견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음. 기타 의견이 없다면 의결을 보아도 되는지? 의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음. 3월 18일 자 방문에 관하여 총학생회장 이창준에 대해 징계 및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11. (2024. 3. 18.) 총학생회장 이창준의 징계안 상정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0명의 찬성으로 원안 부결 ”

※ 반대: 사회(정), 인문(정), 동연(정), 공과(정), 예술(정)

※ 기권: 생과(정), 경통(정), 사범(정), 나노(정), 자연(정), 경영(정)

의장 권한대행 : 징계 및 제재 논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수위 선정 또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음. 마무리하기 전 저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개인적으로 학우분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됨. 일단 첫 번째로 두 날짜를 분리해서 봤다는 점 그리고 그 분리해서 봤을 때 왜 2월 18일 자는 징계하였으며 비슷하게 보이는 3월 18일 자는 왜 징계를 주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만약에 방법이 되지 않는다면 중운위 이름으로 입장문 같은 것을 발표해서 첫 번째 안건에 관해서는 방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과문을 권고하였고 두 번째 안건과 관련해서는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우를 대표해서 간 것이 아니고 개인의 그런 사상, 종교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는 바에 따라서 징계를 내리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이렇게 입장문을 쓰는 것이 학우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 그래서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중운위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문으로 하여 공고하는 것에 중운위 이름으로 권고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 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12.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결정 공고 방식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1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원 안 가결 ”

※ 반대: -

※ 기권: -

간사 : 추가로 회칙을 확인하면 징계를 내릴 때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는 지 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음.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이건 가볍게 며칠 내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인문(정) : 일주일이 어떨지?

자연(정) : 이른 시일 내가 좋을 것 같음.

사범(정) : 최대한 빠르게 게시되면 좋을 것 같음.

의장 권한대행 : 온라인은 3일, 오프라인은 5일은 어떨지?

인문(정) : 아니면 공고를 빨리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은 어떨지?

간사 : 회장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별도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음.

의장 권한대행 : 그러면 빠르게 될 것 같으니 22일이 어떨한지?

간사 : 그렇게 하겠음.

의장 권한대행 :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중운위 임시회의를 폐회하겠음.

□ 구성원

※ 의장(총학생회장), 부의장(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단위별 회장단)

주재 : 의장 권한대행(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석영)			
총학생회장		이창준	△
부총학생회장		서승범	△
운 영 위 원	간호대학 학생회장	송경민	X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도연	O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김상훈	O
	공과대학 학생회장	박기돈	O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이승록	O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김상원	O
	사범대학 학생회장	배어진솔	O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석영	O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조석훈	X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채미	O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담희	X
	예술대학 학생회장	최서윤	O
	의과대학 학생회장	강찬우	X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준서	O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지원	O
	정보의생명공학대학(비)	강규석	X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오준엽	X
	한의학전문대학원(비)	최태영	X
대 리 출 석			
비 고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89조(시행)에 따른 회의 참석 불가	
간 사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 전영욱	

□ 참관인
